

지역 메아리



김제시 통기타 동아리 회원 한달에 두 번 경로당 방문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추억의 통기타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 5월부터 한달에 두 번 기타를 메고 시골마을 어르신들의 문화사랑방인 경로당을 방문하였다.

추억의 통기타 동아리는 2017년 소규모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삼삼오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들이 무료로 지낼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시간 가까이 동호인과 하나가 되어 웃음과 노래가 있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추억의 통기타 관계자는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억의 통기타는 2008년 기타음악을 좋아하는 40~70대의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기타를 배우고 익혀 연주활동으로 시민을 즐겁게 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결성된 통기타 동호회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다문화가정 모유수유교육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을 마련한 다문화가족상담(요춘동 근린공원내)에서 출산을 앞둔 다문화 임신부 와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모유수유 어려움을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하여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알려 주고 또한 임신부 배려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모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 보건소에서는 매 분기 임신부 출산준비교실을 통해 모유수유 실천을 돕고 있으며, 상시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여 상담 및 유축기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국제모유수유강사를 초빙하여 모유수유 실제 배워보기, 유방 통증관리, 올바른 젖 물리기와 젖에서 떼어내는 방법, 모유양을 늘려주는 방법 등 교육 및 상담을 실시 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내 우수축제 2개 오늘 개막

야생속으로 '풍덩'

완주와일드푸드축제 22일부터 24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22일 개막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리는 와일드푸드축제는 '와일드에 풍덩 빠지다'를 주제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선언과 '와일드푸드 축제 7년, 완주의 문화가 되다'를 주제로 개막영상 상영과 올해의 와일드푸드를 공개한다.

이어 CBS주역 콘서트가 열려 여행스케치, 김현정, 최진희, 사량과 평화가 출연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올해 와일드푸드축제는 축제장내 시랑교를 기점으로 축제의 주 공간인 '와일드 나라'와 '로컬푸드 나라'로 나뉜다.

로컬푸드 나라가 일상이라면, 와일드는 일탈의 공간으로 평소 친근하게 접했던 음식들을 로컬푸드 나라에서 만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보고 싶다면 와일드 나라를 찾으면 된다.

특히, 축제의 주제 프로그램이었던 와일드나라가 세분화돼 '와일드 이색음식마당'이 확대됐다. 와일드 이색음식마당에서는 전통 추억의 와일드음식과 세계 6개국의 와일드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다.

추억의 음식으로 떠올리는 개구리튀김, 매뚜기구이, 꿀벌 애벌레전, 말벌주, 벌집 아이스크림, 귀뚜라미 볶음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돼지고 꼬치, 대파미꾸라지구이 등도 선보인다. 또한 필라핀, 베트남, 중국 등의 글로벌 와일드푸드도 함께 운영된다.

기존 '가족요리경연대회'는 주제를 반영해 '전국 와일드푸드 요리대회'로 개최된다. 블랙박스 안에 숨겨진 와일드한 식재료를 현장에서 공개, 즉석요리하게 된다. 대회 이외에도 와일드요리체험관에서 이색요리를 직접 만들어 맛볼 수

도 있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몽골텐트 형식이었던 로컬푸드음원 음식부스를 일차형 대형텐트로 바꿔, 청결한 환경을 제공한다. 축제장 곳곳에 할 수 있는 그늘막도 늘어났다. 카드사용을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결제형 상품권 판매소를 확대했다. 또한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전년도 1일 30대 운영을 탄력적으로 바꾸어 휴일인 23일과 24일에는 1일 35대 운영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자리매김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관광객들을 모실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며 "와일드푸드 축제장에 오셔서 와일드한 체험과 음식, 그리고 어머니의 정과 고향의 향수를 마음껏 느껴 보시기 바란다"며 축제의 기대감을 높였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막 오른다

의암공원 일일서

2017년 전북도 우수 축제인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가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22일 성황리에 막이 오른다.

이번 축제는 '한우로 건네는 사랑! 사과로 전하는 향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 장수읍 의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장에서는 장수사과와 오미자, 한우 등 계수용과 선물용으로 장수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동시에 2,300명이 장수한우를 시식할 수 있는 장수한우마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질 좋고 한우를 저렴하게 먹고,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장수한누리전당과 다목적체육관, 의암호 수변공간, 장수누리파크 등을 활용한 짜임새 있는 행사장 배치와 원활한 행사진행, 넓은 주차공간 확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모



2017년 전북도 우수 축제인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가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22일 성황리에 막이 오른다.

두가 만족하는 축제로 준비됐다. 흥분길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는 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한우와 사과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판매 시식행사와 가족단

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주민 뿐 아니라 도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야(夜)한밤에

주·야간 상설화 위한 체류형 야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난 20일 김제 벽골제에서 막을 올린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가 힘차게 시작된 가운데 주·야간 할 것 없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특히 주·야간 상설화를 위한 체류형 야간 활성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운영된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그간 주요 프로그램이 낮 시간대 주로 편성·운영되어 왔으나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벽골제의 한낮 열기를 식혀 줄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 강화로 축제기간 중 '김제 벽골제 야(夜)한밤에'가 마련된다.

'지평선의 밤 벽골제 야간거리'를 걸다'를 테마로 한 이번 김제 벽골제 야(夜)한밤에는 야경(夜景), 야설(夜說), 야화(夜花), 야로(夜路)의 4가지 테마를 연출하게 되며, 벽골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생태연못 일대, 신정문 입구 등 일부지역에서 연출되었던 야간경

관이 '야경(夜景)'이라는 테마로 저수지 인공섬, 벽골제 담장 일대에서 새롭게 단장되며, 그간 축제 개·폐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해 왔던 '지평선 판타지 쇼'가 단순 불꽃놀이를 넘어 대형 멀티미디어 불꽃을 연출하여 쌍룡마당에서 5일간 가을밤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또한 야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풍등 날리기', '등불체험'을 마련(야화(夜花)해 야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신정문과 구정문 사이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 걸고 싶은 아름다운 지평선의 거리 야로(夜路)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워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그간 주간에 치중되었던 프로그램을 야간에도 상설화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준비하였으며, 김제지평선축제에서 가을밤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보건소, 만 65세 이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완주군 보건소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1일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는 접종 초기 병의원 혼잡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26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은 내달 12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단, 완주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26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관내에서는 지정 병·의원 41곳에서 접종 가능하다.

또한, 내달 12일부터는 만 5세~6세 어린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부자가정세대, 결혼이주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

김경이 보건소장은 "편의성과 접근성 등이 향상된 만큼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지정의료기관 현황 및 보건기관 접종일정은 완주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보건소 예방접종실(063-290-3050, 3049)으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Kimtehyong Sports Academy).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nd a group of people playing basketball on an outdoor court. Text includes the name of the academy, website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테홍, and a list of services: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Contact information: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ddress: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A list of staff members and their qualifications is provided at the bottom.